

제 114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9.11.11)

주제 : 일본잡지만화 시스템의 개요와 정착과정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연구

연자 : 이 현석 (주) 스퀘어 에닉스 출판부 편집부원

현재, 한국 만화 산업은 외형적인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많은 사회 구성원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론이 확산되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위기론은 주로, 이른바 "잡지 만화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비롯하고 있다. 이윤창출의 실패로 인하여 한국 잡지 만화 계에 발생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인적 자원 유인의 실패다. 하나의 체제나 개체를 연구하는데 흔히 적용되는 연구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규모의 대상과의 비교 연구이며, 현재 한국과 가장 비슷한 시스템, 체제, 그리고 규모를 갖춘 비교대상은 일본 만화 시스템이다. 일본의 만화 시스템은 1950년대 말에 등장하여 1960년대부터 두각을 보인 주간 만화 잡지가, 현재 일본 만화 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만화'라는 장르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간잡지를 대량으로 판매하여 온 고단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등의 거대 메이저 출판사가 만들어내는 100만 단위의 주간지가 그 시스템 형성의 주요한 모델을 제시하여 온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일본의 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간은 이러한 대량의 인적자원(편집, 만화 제작 인력)을 상시 잡지라는 지면에 대량으로 투입하는 인적 자원의 대량 투입 구조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 일본과 한국의 만화불황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관찰 결과에서 한국 잡지만화의 가장 문제점은, 편집체계의 불비이다. 따라서 한국은 훈련된 편집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체 안으로서, 일본 편집부에 작품의 기획과 연재 노하우의 제공을 부탁하는 일종의 편집 하청 개념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의 만화가들이 일본에 진출, 연재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 Q&A >

1. 일본만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작가를 투입한다 했는데, 오히려 한국작가들의 자신의 색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일본 시장자체의 크기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은 어떠한가?
 - 일본 만화시장에서 한국작가들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며 작가 역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고 현지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만화계 동인시장의 동향과 만화를 위해 일본유학을 떠나는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독자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며 독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 편집에 해당한다는 의식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시스템설계자로서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일본 만화전문대학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 편집업계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 인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화대학 출신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인시장은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메인 마켓으로 부상하기란 어렵다고 본다.